

# 北塞宣恩圖 연구

이 경 화\*

- I. 서론
- II. 1664년 北道文武科都會試와 《北塞宣恩圖》
- III. 《北塞宣恩圖》의 지리적 구성
- IV. 《北塞宣恩圖》의 회화적 특징
- V. 《北塞宣恩圖》의 시대적 의의
- VI.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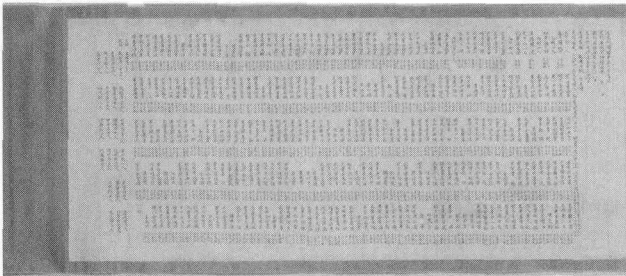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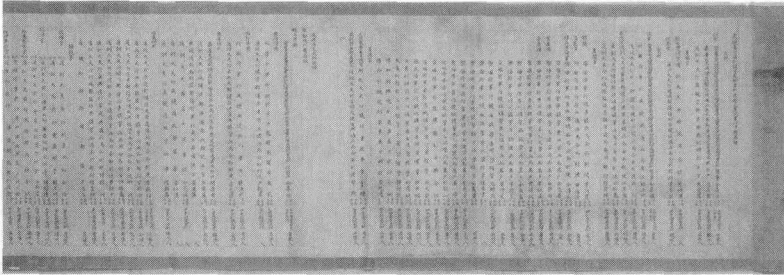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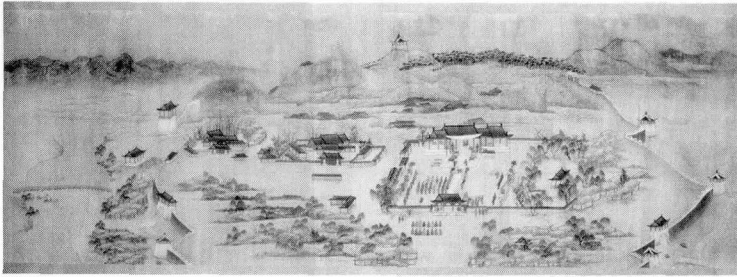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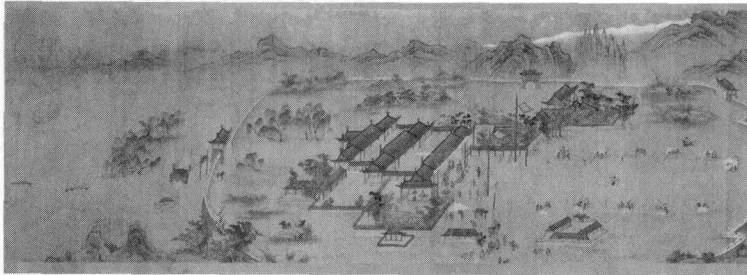
## I. 서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北塞宣恩圖》는 顯宗(재위 1660-1674) 5년 함경도에서 시행된 文武兩科都會試의 장면을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의 구성을 살펴보면, 황권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크게 제목, 그림, 題名錄의 3개 부분으로 이루어졌다<sup>1</sup>. 제목은 종이 바탕에 굵고 단정한 篆書로 쓰여 있으나 누구의 글씨인지는 알 수 없다. 두 번째 부분은 비단에 진채로 그려진 두 장의 그림으로 첫 번째 그림은 문·무 양과의 시험장면을, 두 번째 그림은 放榜儀

---

\* 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과정

北塞宣恩圖



도 1 韓時覺, 《北塞宣恩圖》, 1664년,  
絹本彩色, 57.9×674.1cm,  
국립중앙박물관(德4065)

를 도해하였다. 이 장면의 왼쪽 아래에는 '韓時覺'이라는 화가의 圖畵가 남아 있다. 마지막 부분은 과시에 참여한 시험관과 과거 합격자의 인적 사항이 기록된 제명록이다.

1913년 구입된 이후 박물관의 수장고에 미공개 상태로 보관되어 있던 이 작품은 안휘준 교수에 의해 발굴, 공개된 이후 많은 연구자의 이목을 집중시켜왔다.<sup>1</sup> 그동안 이 작품은 드물게 남아 있는 18세기 이전의 기록화로서, 정확한 평행사선 구도가 적용되어 17세기 궁궐도의 양상을 알려주는 참고 자료로서, 본격적인 진경산수화가 등장하기 이전에 제작되던 실경산수화의 일례로서, 풍속화의 등장을 예고하는 작품으로서, 그리고 도시를 배경으로 한 인간 삶의 모습을 담은 城市風俗圖로서 연구되었다.<sup>2</sup> 이처럼 한 작품을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작품이 가진 중요성이나 복합적인 성격과 관련 있을 것이다.

본 글은 그간에 축적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그동안 이루어져온 다양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북새선은도》에 대한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북새선은도》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점은 '17세기 함경도'라는 독특한 시간적·지역적 배경을 가진 작품이라는 사실이다. 한 회화 작품은 그 시대가 가진 조건에 의해서 규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북새선은도》에 관한 연구는 1664년 함경도에 대한 정치·사회·문화를 아우르는 종합적 고찰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작품과 관련된 인적 조건에 대한 검토는 작품의 제작 의도와 회화적 특징 사이의 관계를 구체화하고 그 사회·문화적 성격을 규정하

<sup>1</sup> 박물관 측의 기록에 의하면 《북새선은도》는 1913년 上見利三郎이라는 일본인에게 100원에 구입되었다고 한다. 이후 1977년 국립중앙박물관의 “未公開繪畫 特別展”을 통해 처음 일반에 공개되었다. 『韓國繪畫: 國立中央博物館所藏未公開繪畫特別展』(국립중앙박물관, 1977), p.212.

본 연구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공한 자료의 도움을 받았다. 박물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sup>2</sup> 《북새선은도》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로는 李泰浩, 「韓時覺의 《北塞宣恩圖》와 《北關實景圖》—鄭敷 眞景山水의 선례로서 17세기의 實景圖」, 『정신문화연구』 34(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pp.207-235; 이 작품을 부분적으로 다룬 연구 중 건축물의 界畵적 특징 및 서양화법에 초점을 맞추었던 연구로는 安輝濬, 『옛 궁궐 그림』(대원사, 1997); 李成美, 『조선시대 그림 속의 서양화법』(대원사, 2000); 김왕직, 「옛 건축도의 도법에 관한 연구—조선시대 건축 관계 기록화에 나타난 배치도를 중심으로」, 『고고미술사론』 6(1996), pp.111-169; 기록화적 성격에 대한 연구로는 朴廷蕙,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일지사, 2000); 同著, 「조선시대의 역사화」, 『造形』 20(1997), pp.8-36; 실경산수화적 성격에 대한 연구로는 朴銀順, 「眞景山水畵의 觀點과 題材」, 『우리 땅, 우리의 진경』(국립춘천박물관, 2001), pp.256-275; 김현지, 「朝鮮中期 實景山水畵 研究」(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풍속화적 측면에서 주목한 연구로는 李泰浩, 『풍속화』 상(대원사, 1996), pp.134-139; 同著, 「조선시대 후기 풍속화를 다시 본다—17, 18세기 기록화에 나타난 새 경향」, 『월간미술』 10(1992); 同著, 「한시각의 《북새선은도》—韓時覺의 實景山水畵」, 『가나아트』 3(1988); 성시풍속도로서 다룬 연구는 김희경, 「朝鮮後記 城市風俗圖 研究」(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이수미,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太平城市圖〉 屏風 研究」(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가 있다. 그 밖에 자료 해제의 성격을 지닌 글로 이견상, 「《北塞宣恩圖》와 『北關酬唱錄』」, 『美術資料』 52(1993), pp.129-167이 있다.

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회화사적 측면에서 보면, 《북새선은도》는 제작시기 및 제작자에 대한 분명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17세기 회화사 연구에 기준점을 제공할 수 있는 작품이다. 따라서 이 작품의 재현 양식을 집중 조명하여 화풍상의 특징과 회화사의 흐름 속에 점유하고 있는 위치를 분명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북새선은도》는 18세기에 나타난 회화적 현상의 연원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었던 17세기 회화의 독자적인 위상을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본 글은 17세기 중엽, 邊地 중의 변지였던 함경도를 배경으로 《북새선은도》와 같은 작품이 제작되기까지 어떠한 역사적·사회적·회화사적 조건들이 상호 작용하고 있었으며, 이 조건들은 작품 안팎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 II. 1664년 北道文武科都會試와 《北塞宣恩圖》

‘北塞宣恩’에서 ‘북새’란 북쪽의 변방 지역, 특히 咸鏡道를 일컫는 용어이며 ‘선은’이란 임금의 은혜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북새선은’이라는 제목은 ‘함경도에 베풀어진 임금의 은혜’를 의미한다. 임금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1664년(현종 5년)에 함경도에서 최초로 시행된 ‘北道文武科都會試’이다. 제목이 의미하는 것처럼 《북새선은도》는 함경도에서 처음 실시된 정식별시를 기념하기 위하여 제작된 작품임에 틀림없다.<sup>3</sup>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작품의 제작 동기가 온전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함경도에 앞서 평안도에서도 첫 번째 정식별시가 시행되었지만 기록화가 제작되지는 않았다. 함경도 이후 평안도, 제주도에서도 잇달아 별시가 시행되었지만 이 지역의 별시에 대한 기록화 역시 남아 있지 않다. 또한 조선시대의 기록화 중에는 지방 관아에서 실시된 과거를 이와 같은 규모와 화격으로 제작한 예가 없다.<sup>4</sup> 따라서 《북새선은도》를 제작한 구체적인 동기가 무엇이었는가를 밝혀려면 조선 전기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함경도의 外方別試가 17세기 중반에 갑자기 시행된 이유는 무엇이며 그림이 제

<sup>3</sup> 『增補文獻備考』 卷187, 選舉考 四, 科制 四(세종대왕기념사업회 編, 『국역증보문헌비고: 선거고』 1[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4], p.198).

<sup>4</sup> 현존하는 조선시대 회화 중 과거시험을 기록한 작품으로는 <謁聖試恩榮宴圖>(1580), <北關別科圖>(1731), <親臨光化門內勤政殿庭試圖>(1747), 《華城陵幸圖屏》 중 제3폭 <洛南軒放榜>(1795) 등이 있다.

작되기까지 어떤 특수한 요인들이 작용하였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북새선은도》의 배경이 된 함경도는 李成桂(1335-1408)의 고향으로서 조선시대 내내 '豊沛之郷'으로서 중시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연환경이 척박하고, 이민족이 섞여 살았으며 중앙의 통치력이 잘 미치지 않아 소외와 차별을 받던 지역이었다. 함경도 출신의 인물은 낮게 평가되어 관직 진출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조정이 소외된 북변 지역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孝宗(재위 1649-1659)·현종대 이후였다. 양란 이후 지속된 淸(1636-1912)의 재침 위협과 수세기 동안 지속된 자연재해로 말미암은 사회적 위기는 함경도와 같이 척박한 변지에서 더욱 심화되어 나타났다. 함경도는 본래 정서적으로 확고하게 조선이라는 국가에 귀속되어 있지 않았다. 아울러 대민 통치의 기반이었던 유교 이념도 지역사회에 확고하게 자리잡지 못하였다.<sup>5</sup> 더구나 척박한 환경 탓으로 17세기를 강타했던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어느 지역보다 컸다. 따라서 진흙이나 구제에 대한 요구도 그만큼 절실한 지역이었다.<sup>6</sup> 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정으로서는 무엇보다 소외된 지역의 요구를 해소하고 민심을 회유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현실인식하에 북변 지역으로 관심이 쏠리게 되었으며 별시를 시행하여 제한적으로나마 邊地人을 등용하고 이 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정책이 조성되었다. 그 결과 1664년 閔維重(1630-1687)의 발의에 의해 함경도 별시가 시행되었다.<sup>7</sup>

함경도 별시는 문무과 양과에 걸쳐 시행된 대과였으며 시험장은 北關의 吉州에 마련되었고 放榜은 南關인 咸興에서 시행되었다. 이 시험에 과견될 京試官으로는 이조판서였던 金

<sup>5</sup> 조선시대에 함경도가 지닌 지역적 성격과 함경도에 대한 중앙의 인식에 대한 연구로는 강석화, 『조선 후기 함경도와 북방영토의식』(경세원, 2000), pp.19-30; 평안도·함경도인의 차별적 등용에 대한 연구로는 강석화, 같은 책, pp.19-30; 吳洙彰, 「17세기 執權層의 平安道民에 대한 人事政策」, 『震檀學報』 80(1995), pp.154-176; 吳洙彰, 『조선 후기 평안도 사회발전 연구』(一潮閣, 2002), pp.10-77.

<sup>6</sup> 16세기 초반부터 약 250년간 계속된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를 '小氷期'라고 한다. 소빙기는 雲璇形의 유성이 지속적으로 지구에 떨어져 이때 발생한 먼지가 태양을 가림으로써 지구의 전체 기온이 내려가는 현상이었다. 소빙기를 연구한 이태진 교수는 『朝鮮王朝實錄』에 기록된 자연재해의 빈도를 조사하고 조선 전 기간을 50년 단위로 나누어 통계를 만들었다. 이 통계에 의거하면 함경도 별시가 시행된 1664년을 포함하는 1500-1750년 사이는 재해가 매우 빈번했던 시기로 나타난다. 이태진, 「소빙기(1500-1750년)의 천체 현상적 원인—《朝鮮王朝實錄》의 관련 기록 분석—」, 『國事館論叢』 72(1996), pp.89-126 참조.

<sup>7</sup> 『備邊司謄錄』 第二十四冊, 顯宗 5年(1664) 1月 16日(국사편찬위원회 편, 『국역비변사등록』 9[국사편찬위원회, 1993], p.4). "북쪽 지방이 아주 멀어 임금의 교화가 미치지 못해 공허한 땅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기근을 구제하는 오늘날에는 의당 廉問하는 일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道內에 원래 출신인 사람이 없으니 近臣을 과견하여 과거 시험을 베풀어 인심을 수습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壽恒(1629-1689)이 차출되었다. 함경도 별시에 김수항이 파견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김수항은 당시의 중앙 정계에서 서인 정국을 이끌었던 영수격의 인물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외방별시에 正二品 이하의 御使나 承旨가 파견되는 경우 합격자에게 直赴殿試라는 중앙의 殿試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지만, 正二品 이상의 重臣이 시관으로 파견되는 경우 합격자에게 별도의 시험 없이 급제자의 자격을 주었기 때문이다.<sup>8</sup> 유학의 기반이 약한 함경도에서 한 번의 시험으로 급제를 인정한다는 것은 지역민에 대한 특별한 '선은'이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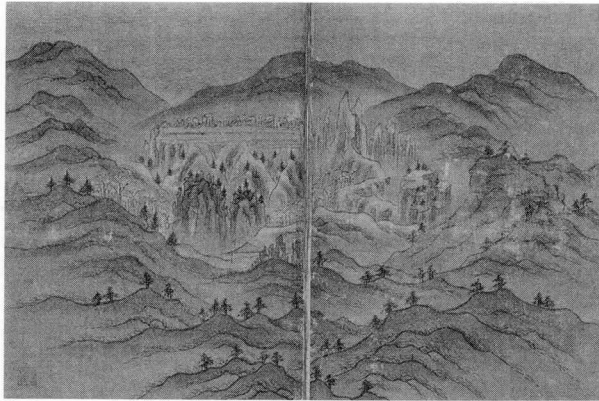
이렇듯 특별한 의미를 담아 시행된 함경도 별시에 대한 문헌 기록은 비교적 풍부하지만 회화의 제작에 대한 이렇다 할 기록은 찾기 어렵다. 조선시대의 과거시험과 관련된 기록을 모은 『科擧謄錄』은 의관과 군관을 비롯하여 당시 함경도 과시에 파견된 인물과 물자의 왕래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림의 제작에 관한 언급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sup>9</sup> 아울러 『북새선은도』의 화면상에 화원의 이름이 새겨진 도서를 남긴 점은 공식 회화의 제작 관행에 어긋난다. 따라서 기록화 제작은 공식적인 과거시험의 일정으로서 계획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북새선은도》와 관련하여 함경도 별시의 특수한 조건으로서 조명되어야 할 부분은 과시의 진행에 참여한 文官 試官들이다. 김수항을 제외한 문관 시관은 모두 당시 함경도에 파견되어 있던 지방관으로 충당되었다. 문관 시관들은 김수항을 맞이하여 城津 朝日軒에서 詩會를 가졌으며 함께 북관의 명승지인 七寶山을 탐승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고받은 40여 수의 시문에 실경산수화 6폭을 곁들여 시화첩으로 제작된 『北關酬唱錄』이 현재까지 전하고 있다.<sup>2, 3, 4, 5, 10</sup> 『북관수창록』에 수록된 북관의 실경도는 17세기의 실경산수화라는 중요한 회화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변지에 파견된 관리들이 과거시험을 계기로 만나게 된 것을 기념하는 계획도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다. 이때 김수항과 사회를 가졌던 지방관은 함경도 관찰사 閔鼎重(1628-1692), 北評事 李端夏(1625-1689), 端川郡守 洪錫龜(16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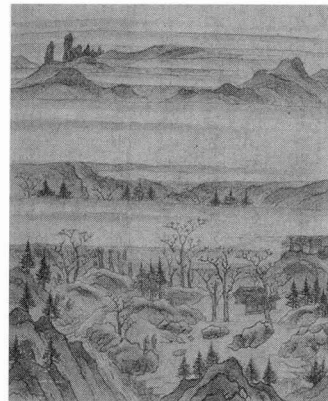
<sup>8</sup> 조선시대의 과거시험에 관한 연구로는 李成茂, 『朝鮮初期 良班研究』(一潮閣, 1980): 별시의 시행과 의의에 관한 연구로는 이원재, 「朝鮮前期 別試 연구」, 『연세교육연구』 11(1998), pp.149-168 참조. 앞의 연구들은 대부분 조선 전기의 과거시험을 조망하는 논의이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는 17세기 중반의 과거시험을 설명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李成茂, 『韓國의 科擧制度』(김문당, 1994), pp.113-129 및 156-161 참조.

<sup>9</sup> 『科擧謄錄』 1(國史編纂委員會, 영인본, 1996), pp.351-352.

<sup>10</sup> 『북관수창록』에 수록된 그림과 시문에 관하여 李泰浩, 「韓時覺의 《北塞宣恩圖》와 《北關實景圖》—鄭澈 眞景山水의 선례로서 17세기의 實景圖」; 이진상, 「《北塞宣恩圖》와 『北關酬唱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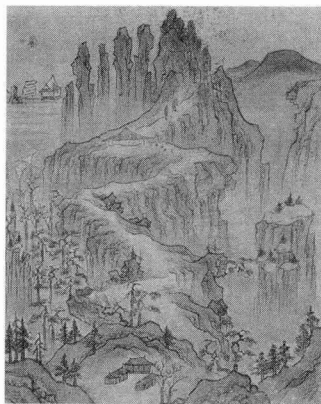
도 2 韓時覺, 〈七寶山全圖〉, 『北關酬唱錄』, 絹本彩色, 30×46.5cm,  
국립중앙박물관



도 3 韓時覺, 〈金藏寺圖〉,  
『北關酬唱錄』, 絹本彩色,  
29.5×23.5cm,  
국립중앙박물관



도 4 韓時覺, 〈硯滴峰圖〉,  
『北關酬唱錄』, 絹本彩色,  
29.6×23.5cm,  
국립중앙박물관



도 5 韓時覺, 〈金剛峰圖〉,  
『北關酬唱錄』, 絹本彩色,  
30×44cm,  
국립중앙박물관

1679), 利城縣監 趙聖輔(생몰년 미상), 咸鏡都事 魚震翼(1625-1684) 등이다.<sup>11</sup> 이들은 대부분 宋時烈(1607-1689)과 李植(1584-1647)의 문인으로 모두 西人의 당색을 지닌다. 이들은 정치적으로는 김수항의 지지자인 한편 문화적 소양으로 이름이 높았던 문사들이었다. 민정

<sup>11</sup> 이외에도 현종 3년(1662년)부터 현종 5년 12월까지 함경도 居山驛의 察訪을 지냈던 金克和(1606-?)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시회에 참석하였다. 詩會의 참가자에 대하여 閔鼎重, 『老峯集』 卷1, 「次久之城津北樓翫月韻」(『韓國文集叢刊』 129[민족문화추진회, 1998], p.12). “朝日軒在磨天嶺下 前臨大海 坐見日出 故得此名 余之留待相公 亦爲同觀日月出耳 向夕 與都事魚君登城樓 以候相公 相公聞我在樓上 爲之徑造 端川太守洪君 居山督郵金君隨至 相與設飲翫月 酒數行 相公賦一律投我 仍屬坐中皆和 余雖不能詩 不可以無謝 恐諸君亦難辭耳.”

중을 비롯한 문관 시관들은 대민 교화를 책임지는 지방관으로서 양란을 겪은 함경도 백성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피해를 慰撫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의 의병장인 鄭文學(1565-1624)와 같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던 북관의 충의 열사를 비롯하여 효자·열녀에 대한 조사와 기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유교적 통치 이념이 백성들의 생활 질서로 자리잡도록 노력하였다.<sup>12</sup> 이와 같은 노력에는 중앙 정부의 지배력이 약한 변경 지역에 왕권과 중앙 지배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다는 의미가 있었다.<sup>13</sup>

시관 중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관찰사 민정중이다. 민정중은 김수항과 더불어 과거시험을 진행하고 중앙에 보고를 책임진 인물이었다. 그는 함경도에 儒風을 일으키고 예학을 바로잡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되는 관찰사였다. 민정중을 특히 주목하는 한 가지 이유는 그가 영남관찰사로 재직하던 중 임진왜란 때 순절한 宋象賢(1551-1592)에 대하여 조사하고 殉節圖를 제작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일에 대하여 기록한 「壬辰遺聞」에서는 그가 畫工을 시켜 순절도를 그리게 하였다는 구절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礪山宋氏申公派譜』에는 좀더 상세한 내용이 나타난다. 당시에 민정중은 순절도 3폭을 제작하여 조정과 송상현 중가에 각각 1폭을 보내고 나머지 1폭은 본인이 소장하였다.<sup>14</sup>

육군박물관 소장의 〈東萊府殉節圖〉는 민정중의 원작을 바탕으로 1760년 화원 卞璞(1741-1783 이후)이 다시 그린 작품이다.<sup>15</sup> 비록 변박의 순절도는 원작이 아니지만 《복새

<sup>12</sup> 각 인물의 활약에 대해서는 『민족문화대백과사전』 4(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pp.745-746; 『민족문화대백과사전』 8, p.770; 『민족문화대백과사전』 17, p.757; 『민족문화대백과사전』 15, p.32; 『민족문화대백과사전』 25, p.100. 鄭文學(1565-1624)는 임진왜란 당시 회령의 鞠景仁(?-1592)이 반란을 일으키자 의병을 일으켜 반란을 평정하였다. 이후에 李适(1587-1624)의 난(1624)에 연루되어 고문을 받다 죽었다. 현종 6년(1666)에는 정문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 이듬해 우찬성에 추증되었다. 『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 p.763. 민정중은 관찰사로 함경도에 머무는 동안 이단하와 함께 정문부의 史蹟을 조사하고 조정에 알려 관직을 추증시키고 사당을 세워 충렬사라는 사액을 내리게 하였다. 『민족문화대백과사전』 17, p.7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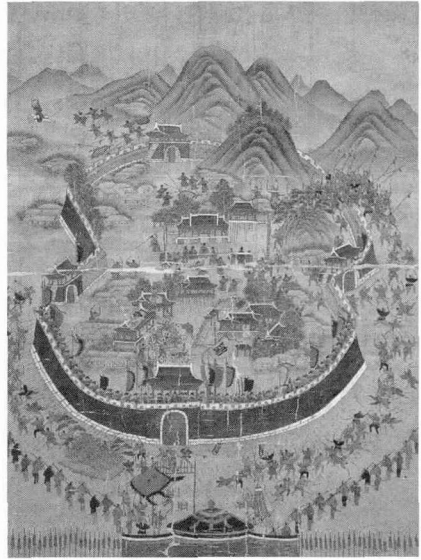
<sup>13</sup> 조선 중기의 지방 지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시기 사회사 연구반, 『조선은 지방을 어떻게 지배했는가』(아카넷, 2000), pp.119-179 참조.

<sup>14</sup> 閔鼎重, 『老峯集』 卷十, 「壬辰遺聞」(『韓國文集叢刊』 129[민족문화추진회, 1998], pp.228-230). "謀欲求文刻石以載其事 且造數間屋子於官道之傍 令畫工圖其跡 以爲觀感之助 又欲改築府城." 변박이 제작한 순절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김동철, 「왜란도(倭館圖)를 그린 변박(卞璞)의 대일 교류 활동과 작품들」, 『한일관계사연구』 19(2003), pp.47-71; 정길자, 「송상현 공 중가소장 東萊府使殉節圖 研究」, 『대학발전연구 논문집』 20(2000), pp.148-208; 권소영, 「육군박물관소장 〈東萊府殉節圖〉 연구」, 『학예집』 10(육군박물관, 2003), pp.1-45 참조.

<sup>15</sup> 〈동래부순절도〉는 지도적 형식으로 재현된 동래부지와 동래성을 배경으로 여러 장면의 사건을 한 화면에 결합시켰다는 점에서 《복새선은도》와 유사한 구성을 보인다. 안휘준 교수는 《복새선은도》와 〈동래부순절도〉에서 공통된 양식적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화풍을 17세기적인 요소라고 설명하였다. 안휘준, 『옛 궁궐 그림』(대원사, 2002), pp.28-32.

선은도》와 제작 목적이나 형식에서 공통점이 나타난다. 따라서 순절도는 《북새선은도》의 제작 배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전거가 될 것이다.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부산 지역에서 순절도를 제작한 배경에는 이민족과 접촉이 빈번하여 풍속의 교화가 절실했던 변지에 유교적 질서를 세우고 왕실의 권위와 통치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민정중은 이러한 숭앙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회화 같은 시각적 매체를 이용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잘 인식하고 있었다.<sup>16</sup>

이 작품의 제작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인물은 경시관 김수항이다. 필사본으로 남아 있는 『甲辰北征錄』은 김수항이 북관의 순력 중에 지은 시문 76수를 모아 김수항의 아들 金昌集(1648-1722)이 다시 엮은 시문집이다.<sup>17</sup> 이 중 김



도 6 卞璞, 〈東萊府殉節圖〉, 1760년.  
絹本彩色, 96×145cm, 육군박물관

수항이 서울로 떠나기 전날 지은 「放榜後翌日本府設宴 豊沛館循古事也 方伯以下文武諸邑 幸皆會席上口占」에는 함경도 별시와 회화와의 관계를 암시하는 언급이 나타난다.<sup>18</sup> 김수항은 시문에서 방방연의 성대한 정경을 묘사한 후에 “명나라의 사라진 자취가 돌아온 듯하니 그림으로 그릴 만하다”고 읊었다. 한편 민정중의 『老峯集』에는 김수항의 시문을 차운한 「次久之留別韻」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그림에 관한 내용이 다시 언급되고 있다.

此日離懷其奈無 오늘 이별의 심사가 어찌 없겠는가미는,  
仙衫誰挽玉京趨 신선의 옷을 누군가 잡아당겨 서울로 재촉하네.

<sup>16</sup> 함경도 관찰사로서 민정중의 치적에 관한 내용은 增補咸山志編纂委員會, 『增補咸山志』(시사문화사, 1971), pp.247, 297, 355 참조.

<sup>17</sup> 김창집이 이 시문집을 엮게 된 자세한 과정에 대하여 國學振興研究事業推進委員會 編, 『韓國簡札資料選集 4, 安東金氏清陰家門篇 1』(韓國精神文化研究院, 2003), pp.260-262를 참조.

<sup>18</sup> 國學振興研究事業推進委員會 編, 『韓國簡札資料選集 4, 安東金氏清陰家門篇 1』, pp.236-237. “三百年來此會無 桂花三百滿庭趨 元戎玉節雄藩最 太守銅符列郡俱 更覺遐方偏雨露 不妨今夕盡歡娛 明朝一散還陳跡 勝事眞堪入 畫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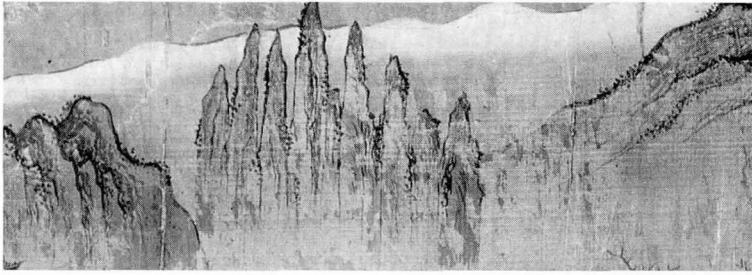
關山遍踏萬千後 변방의 산을 천만번 두루 밟은 후에  
 文武拔尤三百俱 문무가 더욱 뛰어난 삼백을 갖추었네.  
 秉燭深杯須盡飲 촛대를 잡고 가득 술잔 채워 모름지기 다 마시고,  
 當筵新曲摠堪娛 이 자리에서 새로운 노래곡조에 모두 즐기세.  
 休言白面留邊塞 백면서생으로 변방에 머문다 말하지 않고,  
 擬看麒麟作畫圖 기린을 보고자 그림을 그린다네.<sup>19</sup>

민정중은 시문의 중단에서 과시에 대하여 언급하며, 마지막 행에서는 “麒麟을 보고자 그림을 그린다네”라고 하였다. 기린이란 원래 상상의 동물로서 걸출한 인재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또한 기린은 漢代(202 B.C.-220 A.D.)에 공신도상을 그리고 관작 성명을 적어 걸었던 전각의 이름이었다.<sup>20</sup> 이러한 용례를 고려하면 민정중이 말하는 ‘기린을 보기 위한 그림’이란 함경도 별시에 참석한 시관과 합격자의 모습을 도해하고, 각각의 관작 성명을 기록한 《북새선은도》에 대한 은유적 표현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들이 주고받은 시문은 《북새선은도》의 제작이 민정중을 비롯한 시관들에 의해 도모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북새선은도》는 함경도 별시에 대한 시각적 보고서의 기능을 가지도록 제작되었다. 관찬 사료에 화원이나 회화의 제작에 대한 기록이 부재한 점, 지방 관아에서 시행된 과거시험에 대한 기록화의 선례가 없는 점, 화원의 도서가 남아 있는 점 등을 통해 이 작품이 중앙의 사전 계획에 의해 과거시험의 일부로서 제작된 것이 아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중앙의 통제력이 미치기 어려운 변지를 배경으로 공무 수행과 관련된 회화 작품이 제작된 경우,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로서 그 지역에서 국가의 통치력을 실현하고자 했던 지방관의 존재가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관의 주도하에 제작된 작품이라 해서 《북새선은도》가 일차적으로 과거시험의 보고서적인 역할을 가지며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가를 대신하여 직접 이 작품의 제작을 도모하고 작

<sup>19</sup> 閔鼎重, 『老峯集』卷1, 「次久之留別韻」(『韓國文集叢刊』129[민족문화추진회, 1998], p.12).

<sup>20</sup> 기린은 상상의 동물로서 살아 있는 풀을 밟지 않고 생물을 먹지 않으며 모양은 사슴 같고 이마는 이리, 꼬리는 소, 굽은 말과 같고 머리 위에 빨 한 개가 있다고 한다. 聖君이 나서 王道가 행해지면 나타난다고 한다. 또한 기린은 漢武帝가 기린을 잡았을 때 건축한 전각의 이름이기도 하다. 漢宣帝는 흉노를 정벌하고 추장 鮮于가 내조하자 그에게 과시하려고 공신 11명의 상을 그려 기린각에 걸고 각각의 관작 성명을 적었다고 한다. 『大漢韓辭典』12(大修館書店, 1958), pp.915-916; 『漢韓大字典』(民衆書林, 2002), p.2361; 강관식, 『조선후기 궁중화원 연구』상(돌베개, 2003), p.179. 한시의 해석은 박지현 씨의 도움을 받았으며, 기린과 공신각의 관계에 관해서 洪善杓 교수의 조언을 받았다.



도 7 韓時覺,  
《北塞宣恩圖》중  
길주의 산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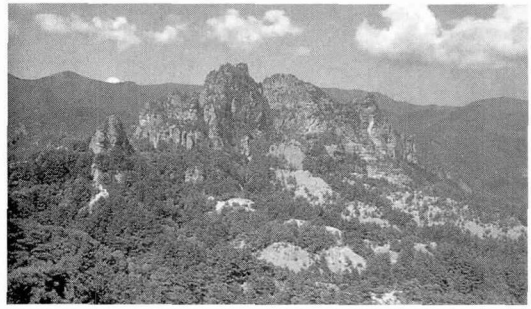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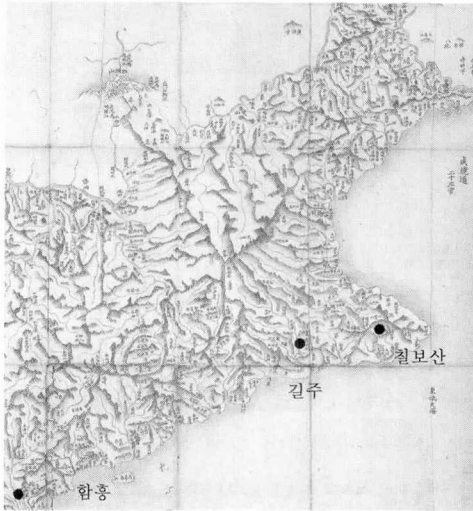
품의 목적과 그에 맞는 형식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로서 관료들을 주목하였다. 정파 간에 경쟁이 극심하던 17세기 중엽, 평소 친분이 두터운 서인 계열의 관료들이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함경도에서 김수항, 민정중과 같은 지도자격의 인물을 맞이하여 함께 행사를 주관한 사실은 시관들에게 매우 각별한 사건이었다. 이들의 만남과 성공적인 행사의 주관을 기념하려는 의도는 《북새선은도》를 제작한 이유 중 하나였을 것이다.

### III. 《北塞宣恩圖》의 지리적 구성

《북새선은도》의 화면 구성을 보면 부감시로 내려다본 읍성을 화면의 중앙에 위치시키고 자연경물로 주변을 둘러쌌다. 이것은 “특정 지역의 자연경관이나 생김새를 산수화를 곁들여 입체적으로 나타낸” 회화식 지도의 형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sup>21</sup> 따라서 지도와 마찬가지로 화면의 구성과 경물의 선택을 통해 제작 의도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도와 달리 화면상에 경물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아 먼저 무엇이 그려졌는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과시가 한창인 <길주과시도>의 화면 오른쪽 위에는 높은 산악이 있다<sup>도7</sup>. 호분으로 채색된 높은 산악을 배경으로 두드러지게 표현된 뾰족한 암산은 개성적인 형태로 보아 특정 지형물을 반영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 암산이 북관의 명승지인 ‘七寶山’을 재현한 것으로 보았다.<sup>22</sup> 칠보산은 기암절벽으로 유명한 명산이며 김수항의 여정에 포함

<sup>21</sup> 회화식 지도의 정의와 회화와의 관계에 대하여 安輝濬, 『우리 옛 지도와 그 아름다움』(효형출판, 2003), pp.185-219; 제작 주체나 목적에 따른 지도의 차이는 배우성, 『조선후기 국토관과 천하관의 변화』(일지사, 1998), pp.160-203; 고지도와 읍지의 관계에 관하여 李敬美, 「地誌 및 地圖의 표현요소와 環境인식—조선후기 영남지역의 郡縣地圖를 중심으로」, 『韓國의 옛 地圖』(영남대학교박물관, 1998), pp.128-138를 참조.



도 9 칠보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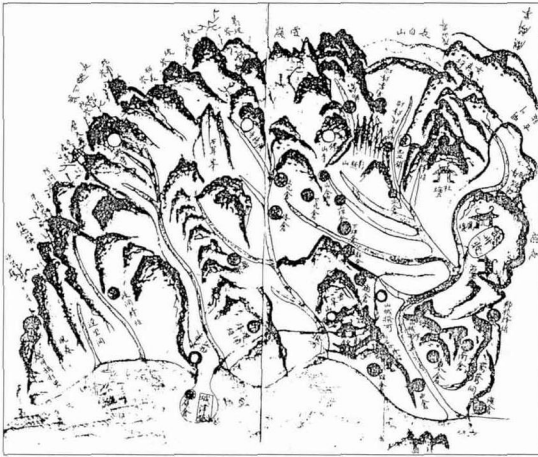
도 8 <咸鏡道>, 『海東圖』, 18세기 말, 彩色寫本, 124.3×94.0cm, 호암미술관

된 장소였기 때문에 <길주과시도>에 열 지어 서 있는 암봉은 칠보산을 재현한 것으로 생각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림으로 재현된 암산과 실제 칠보산의 지형적 특징과는 큰 차이가 있다. 함경도 전체의 지형을 고려하면, 칠보산은 길주성의 동쪽에 있기 때문에 길주성에서 바라보았을 때 바다를 배경으로 서 있어야 하지만 그림에는 설산을 배경으로 그려졌다<sup>도8</sup>. 또한 실제 칠보산의 사진과 비교해도 형태에서 차이가 있다<sup>도9</sup>. 따라서 그림의 암산에 대하여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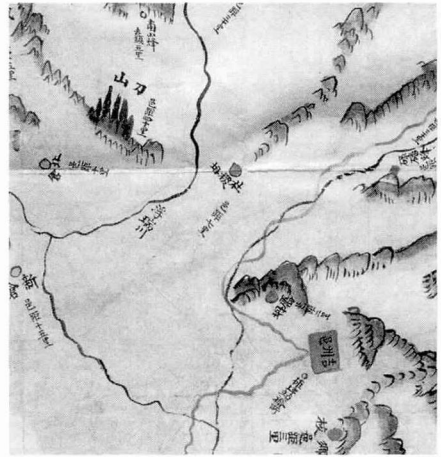
『咸鏡北道吉州郡邑誌』(奎11003)에 수록된 邑圖는 <길주과시도>의 지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움을 준다<sup>도10</sup>. 판화로 제작된 이 읍도의 길주 부지는 비록 소략하게 표현되었지만 《북새선은도》에 보이는 지형과 거의 일치한다. 특히 읍성의 북쪽에는 이름없이 날카롭게 솟은 칼날 형태의 산이 그려져 있다. 그 후방의 흰색 산맥에는 長白山이라 기재되어 있다. 규장각 소장 『1872년 지방지도』에도 날카롭게 솟아 있는 산이 그려져 있고, ‘刀山’이라는 지명이 표기되었다<sup>도11, 23</sup>. 또한 이 지도에 의하면 도산과 읍성의 사이에 社稷壇이 위치했던 것

<sup>22</sup> 七寶山은 명천 남쪽에 있으며 제2의 금강이라 불리는 절경이다. 원래 일곱 개의 산이 하늘을 찌를 듯이 서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바다에 가라앉고 6개의 봉우리만 남았다고 한다. 명천군지편찬위원회, 『明川郡志』(기사, 1991), pp.171-176.

<sup>23</sup> 규장각 소장의 『咸鏡北道吉州郡邑誌』(奎11003)는 위의 『明川郡志』에 영인되어 있다. 『1872년 지방지도』 중 <吉州地圖>(奎10685)는 서울대학교 奎章閣 편, 『朝鮮後期 地方地圖: 江原道·咸鏡圖』(규장각, 2000)에 수록되어 있다.



도 10 <吉州地圖>, 『咸鏡北道吉州郡邑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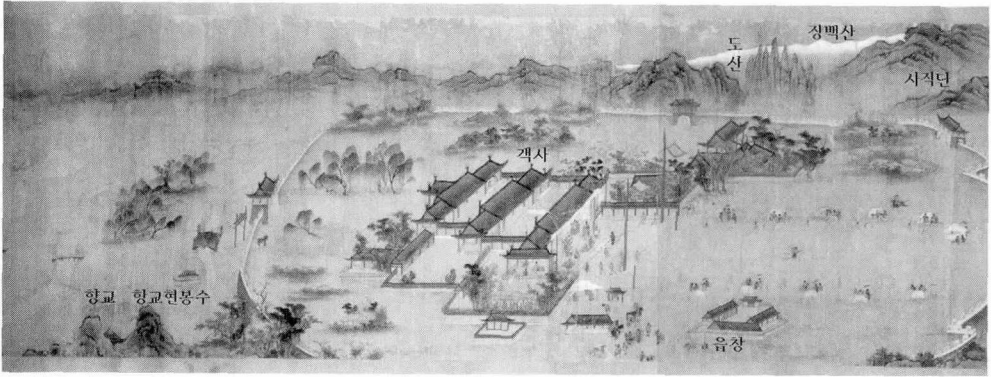


도 11 <吉州地圖>, 『1872년 지방지도』,  
紙本彩色, 75×104cm, 奎章閣(奎106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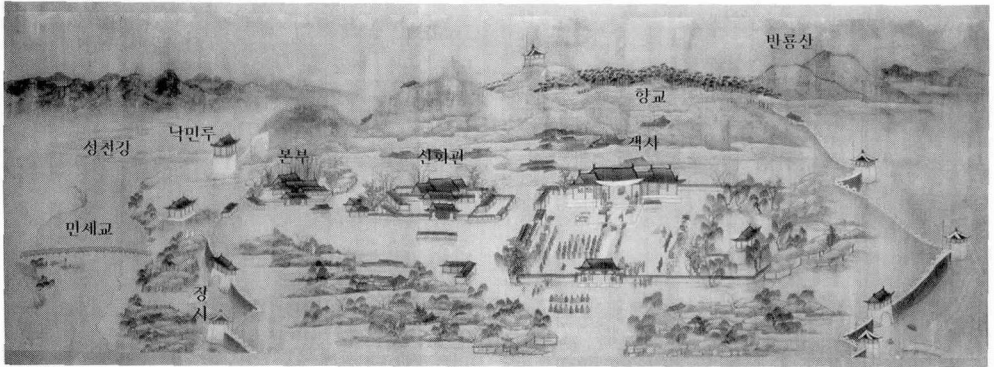
로 나타난다. 지도와 그림을 비교하여 <길주과시도> 화면의 암산이 도산이며 오른쪽 산 중턱의 붉은색 지형물이 사직단과 홍살문임을 확인할 수 있다<sup>12</sup>. 도산은 끝이 창검처럼 보이는 길주의 명산이었다고 한다. 장백산은 白山이라고도 하며, 5월이면 눈이 녹고 7월이면 다시 눈이 쌓였다고 한다.<sup>24</sup> 길주별시는 8월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미 눈이 쌓여 그림과 같이 설산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도산과 장백산을 기준으로 삼아 그림에 재현된 경물을 지도에서 확인해 보면, 길주 부지 대부분이 <길주과시도>에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읍성 주변과 북서쪽의 개성적인 지형이 강조되었으며, 특별한 지형물로는 길주부지에서는 刀山, 사직단, 향교와 봉수가, 읍성에서는 객사인 雄城館와 邑倉 등이 정확하게 묘사되었음이 확인된다.

<함흥방방도>는 회화식으로 제작된 『1872년 지방지도』와 구성과 방위가 거의 비슷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지형물을 비정할 수 있다<sup>13</sup>. <함흥방방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화면 중앙에 위치한 세 개의 건물이다. 방방이 시행되는 객사를 기준으로, 좌측에 그려진 두 건물은 관찰사의 관아인 宣化堂과 本府이다. 지도상에서 선화관은 읍성의 북쪽에 위치하지만 <함흥방방도>에서는 좌우로 긴 화면에 맞춰 약간 전방에 배치되었다. 자연지형 중에는 함흥의 진산인 반룡산과 함흥평야의 젖줄인 성천강이 강조되었다. 그 외에 함흥의 명소인 樂民

<sup>24</sup> 李端夏 編, 『北關志』, 「鏡城府」(『私撰邑誌 咸鏡道』 44(7)(韓國人文科學院, 1989), pp.209-210).



도 12 韓時覺, 《北塞宣恩圖》 중 〈吉州科試圖〉



도 13 韓時覺, 《北塞宣恩圖》 중 〈咸興放榜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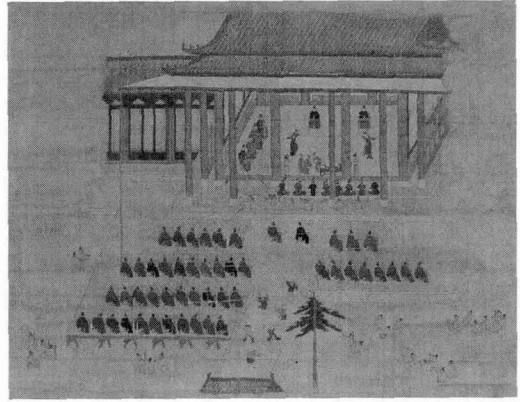
樓와 萬世橋, 교육의 중심인 향교와 시장을 표현하여 문물이 번성한 이 지역의 모습을 강조하였다도13, 14.

지도와의 비교를 통해 확인한 결과 그림에 선택적으로 그려진 지형과 건물은 각 지역의 행정, 관방, 구휼, 교육과 관련되었다. 이처럼 지형지물을 선택하여 재현하는 바탕에 이 지역의 통치에 대한 관심이 놓여 있음을 읽을 수 있다. 그렇다면 한 지역을 회화로 재현할 때 군현지도의 형식을 이용해 통치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북새선은도》의 구성적 특징을 명쾌하게 이해하려면 이 작품을 기록화의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존하는 과거시험을 그린 기록화 중 가장 오래된 작품은 〈調聖試恩榮宴圖〉(1580)이다도15. 서울의 의정부 관아에서 시행된 알성시은영연은 행사가 시행된 정전을 중심으로 그렸으며 주변의 지형지물은 생략하였다. 이처럼 궁궐과 그 주변에서 시행된 행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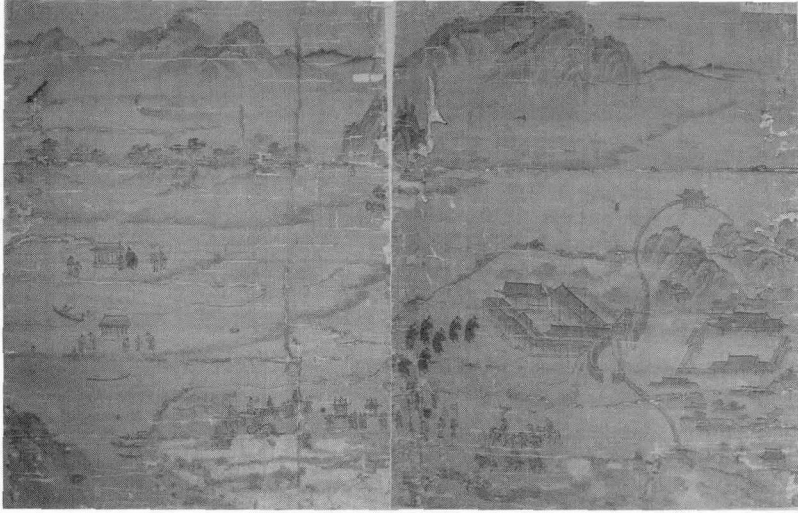
도 14 <咸興府地圖>, 『1872년 지방지도』,  
紙本彩色, 111×76cm, 奎章閣(奎10686)



도 15 <謁聖試恩筵宴圖>, 1580년, 絹本彩色,  
118×105.6cm, 日本 京都 陽明文庫

그린 기록화는 행사 장면을 부각시켜 그리기 때문에 자연환경은 간략하게 표현되거나 생략되었다. 반면에 《북새선은도》는 지도 형식을 활용하여 넓은 지역을 효과적으로 화면에 포괄하였다. 또한 행사와 더불어 행사가 시행된 지역의 특수한 지형과 행정 요소를 강조하였다. 조선시대의 기록화에서 자연지형을 그려 넣는 전통은 <中廟朝書筵官賜宴圖>(1533)나 <讀書堂契會圖>(1570)에서부터 연원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도성을 떠나 외방 지역에서 시행된 행사를 그릴 때, 화면상에서 지형지물의 역할이 특별히 강조되는 경향이 있었다. 넓은 장면을 한 화면에 포괄하고 행정 요소를 지역의 표지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북새선은도》 이전부터 기록화에 이용되었다. 압록강 일대의 실경을 배경으로 사신의 영접 장면을 그린 1572년의 <義順館迎詔圖>가 이러한 형식을 보여주는 작품이다<sup>26</sup>. 화면 한편에 義州城을 간략하게 그려 행사가 치러진 지역을 강조하고 자연 지형지물과 더불어 읍성을 지역의 상징으로 이용하는 회화적 전통을 찾아볼 수 있다. 제주에 파견된 李衡祥(1653-1733)의 주문으로 1702년 제작된 <耽羅巡歷圖>는 대부분 장면에서 지도 형식을 적극 활용하였다. 동래부사의 치적을 그린 <東萊府使接倭使圖> 역시 도입 부분에 동래성을 회화식 지도 형식으로 그려 넣었고 부지의 주요 지형지물에는 명칭을 기입하였다.<sup>25</sup>

<sup>25</sup> 安輝濬, 「奎章閣所藏 繪畫의 內容과 性格」, 『韓國文化』 10(1989), pp.348-350; 洪善杓, 「《耽羅巡歷圖》의 기록화적 의의」, 『朝鮮時代繪畫史論』(문예출판사, 1999), pp.483-494; 이성훈, 「《東萊府使接倭使圖》」(2004년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대학원 洪善杓 교수 담당 한국회화사세미나 발표요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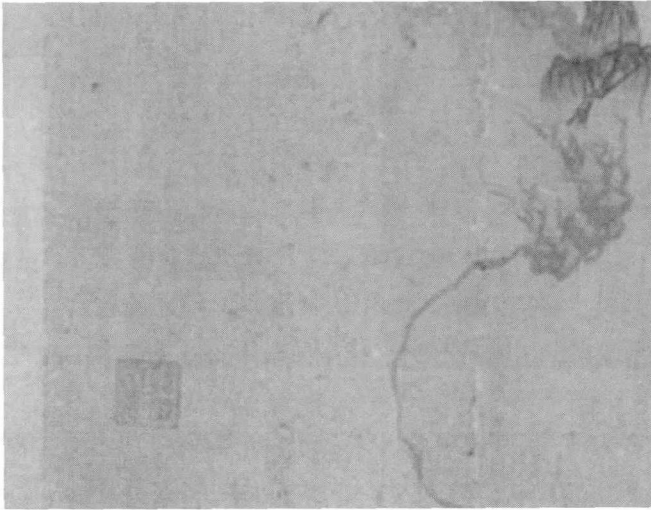


도 16 〈義順館迎詔圖〉, 1572년, 絹本淡彩, 각 46.5×38.3cm, 奎章閣

이처럼 변지 관아의 행사도는 행사와 더불어 관할 지역의 주요한 행정적 지형지물을 화면에 포괄하여 지역적 특수성을 강조하였다. 지역적 성격을 더욱 효과적으로 강조하고자 계획적으로 경물을 선택하거나 축소·생략할 수 있는 지도의 형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런 형식의 작품에서 지도의 표현 방법을 빌려 의도적 질서를 부여해 화면에 재현된 산수는 더는 감흥의 대상이나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자연으로서 나타나지 않는다. 지형적 요소들은 행사가 실행되는 지역의 지리적 정보를 전달하는 배경의 차원을 넘어 이 지역을 국가의 강역으로 규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즉 《북새선은도》에 재현된 함경도의 지형지물은 이 지역이 확고한 조선의 강역이며 중앙의 지배 이념이 상시로 효력을 미치는 통치 영역임을 시각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IV. 《北塞宣恩圖》의 회화적 특징

《북새선은도》 및 『북관수창록』의 실경도에는 韓時覺이라는 동일한 朱文方印이 남아 있다(도 17). 《북새선은도》와 『북관수창록』에는 미세한 차이를 가진 두 개 이상의 필치가 섞여 있기 때문에 도장의 존재만으로 화가를 확신하기 어렵다. 그러나 두 작품에 남아 있는 동일한 도서는 이 작품들의 화풍이 한시각이라는 도화서 화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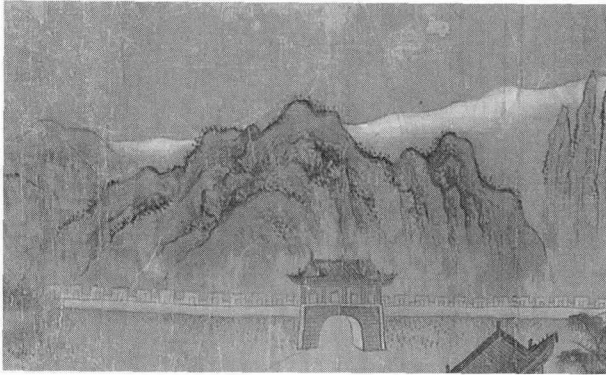
도 17 韓時覺, 《北塞宣恩圖》 중  
한시각의 인장

한시각은 17세기 중엽에 의관, 역관, 화원을 다수 배출한 기술직 중인 가문 출신으로, 도화서 교수를 지냈으며 산수와 인물화에 모두 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존하는 한시각의 작품은 10여 점이 넘지 않으며 이 중 상당수가 감필의 선종인물화이다. 따라서 《북새선은도》와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작품이 없어 한시각의 화풍을 규명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sup>26</sup> 한시각의 활동 중 눈에 띄는 사실은 1655년 통신사행에 수행화원으로 도일했던 일이다. 이 때 그는 南龍翼(1628-1692)의 《扶桑詩畫帖》에 일본의 실경을 그렸다고 전해진다. 1682년에는 李滌 일행에 포함되어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보인다.<sup>27</sup> 이듬해에는 송시열의 77세 초상화를 그렸으며, 1688년에는 태조의 어진모사 취재에 秦再奚(?-1735 이전) 등과 함께 참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sup>28</sup> 이와 같은 기록을 종합해 그의 화격과 활동 영역을 간접적으로

<sup>26</sup> 한시각의 활동과 가계에 대해서는 李昌鉉, 『姓遠錄』(고려대학교중앙도서관, 1985), pp.622-625; 홍선표, 「17·18세기 한일간 회화교섭 연구」(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9), pp.20-33; 李泰浩, 「韓時覺의 《北塞宣恩圖》와 《北關實景圖》—鄭敦 眞景山水의 선례로서 17세기의 實景圖」, p.210의 가계표 참조. 《북새선은도》와 『북관수창록』 외에 한시각 작품의 소장처는 다음과 같다. 국내에 소장된 그림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의 〈簞笠人物圖〉, 간송미술관의 〈布袋像〉 두 점이 있다. 일본에 전해지고 있는 高麗美術館의 〈布袋像〉, 幽玄齋의 〈布袋像〉, 岩屋寺藏의 〈川蟬圖〉는 통신사 수행화원으로 도일하였을 당시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sup>27</sup> 한시각은 李滌을 奏請正使로 하는 포상자 명단에 화원으로 수록되어 있어 그가 수행화원으로 연경에 다녀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承政院日記』 第二百九十二冊 肅宗 8年(1682) 7月 8日(癸丑)(國史編纂委員會, 『承政院日記』 15[國史編纂委員會, 1961], p.553).

<sup>28</sup> 『承政院日記』 第三百二十八冊 肅宗 14年(1688) 3月 19日(壬辰)(國史編纂委員會, 『承政院日記』 17[國史編纂委



도 18 韓時覺, 《北塞宣恩圖》 중 산악

나마 짐작할 수 있다. 즉 한시각은 17세기 중·후반 국가나 사대부가 주관하는 중요한 繪事에 고루 참여한 화원이었으며 전통적인 도화서 화풍에 능숙한 화원이었을 것이다.

한시각이 전통적인 도화서 화풍을 구사하던 화가였음은 《복새선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작품에 나타나는 산의 표현 방법을 자세히 보면, 구불구불한 물결 모양의 능선을 좌우로 중첩시키고 능선과 능선의 사이에 단선점준과 들뜬 점을 찍어 넣었다<sup>18</sup>. 이와 같은 부드러운 산의 외형과 단선점준을 활용한 표현은 17세기 도화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李澄(1581-1645 이후) 화풍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선 전기의 안견 화풍을 계승한 전통성이 강한 화법이다. 《복새선은도》의 두드러진 회화적 특징은 청록의 설채법에서 찾을 수 있다. 길주의 높은 산악에는 맑은 군청색이 두드러지게 사용되었으며 함흥의 낮은 산에는 밝은 녹색을 사용하였다. 17세기 중반 이후에 제작된 회화 중에는 《복새선은도》처럼 호분과 군청을 많이 사용하고 물감을 두껍게 塗布한 대형의 채색작품이 종종 등장한다. 이러한 청록 채색 기법은 17세기 회화의 대표적 특징 중 하나이다.<sup>29</sup> 趙涑(1595-1668)의 《金櫃圖》(1656), 秦再奚(?-1735 이전) 전칭의 《肅宗御題蠶織圖》(1697)와 같은 御題를 가진 작품과 더불어

員會, 1961], p.391). “壽興又曰 畫師善手 求諸方外 亦不易得 曹世傑 宋彰燁 韓時覺 許義順 尹尙益 劉宗洛六人 少精於模寫 此六人 皆爲取才 而光山副正 亦有模寫之才云 使之同參 而趙之耘 則既有庭訓 而善於繪事 此人最好矣.” 한시각 필의 《宋時烈像》에 대한 연구로는 趙善美, 『韓國의 肖像畫』(悅話堂, 1994), pp.295-317; 宋時烈, 『(國譯)宋子大典』 13(민족문화추진회, 1988), p.274; 劉復烈, 「韓時覺」, 『韓國繪畫大觀』(삼정출판사, 1973), pp.273-277; 安輝濬, 『한국회화사 연구』(시공사, 2000), pp.530-531.

<sup>29</sup> 安輝濬 교수는 청록산수화의 유행을 17세기 회화사의 특징으로 지적하였으며 조선 후기 궁중장식화에 청록산수화의 풍조가 강하게 드러나는 것은 17세기 회화의 전통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安輝濬, 위의 책, pp.528-529. 청록산수화의 상징적 의미 및 《복새선은도》에 사용된 안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록산수-낙원을 그리다』(국립중앙박물관, 2007), pp.34-3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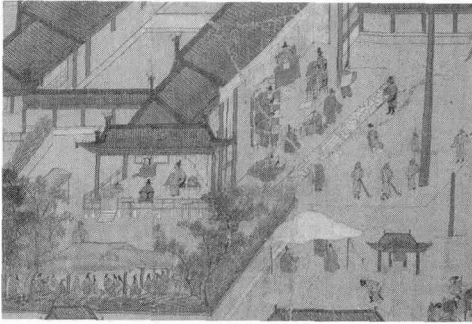
도 19 韓時覺, 《北塞宣恩圖》중  
무과시험 장면

〈東門送別圖〉나 남인의 집권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제작된 〈權大運耆老宴會圖〉(1689)와 같은 사대부 주문의 작품에서 고루 청록 진채가 구사되고 있다. 이들 작품에서 17세기에 진채의 청록산수가 왕실에 한정되지 않고 사대부 주문의 작품까지 광범위하게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3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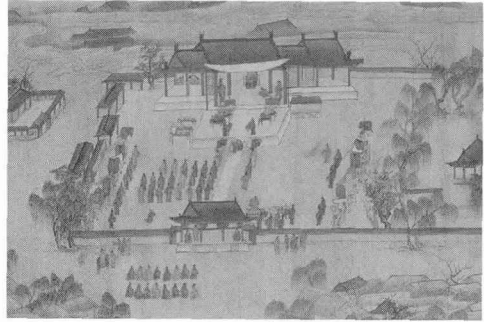
길주 시험장의 시험관과 응시자들의 모습은 『經國大典』이나 『五禮儀』의 규정과 일치한다. 함경도 무과규식에 의하면 시험은 騎芻, 六兩箭, 柳葉箭의 세 과목이 치러졌는데 화면에는 기추 장면이 선택되었다도 19.<sup>31</sup> 기추란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로 다섯 개의 목표물을 잇달아 쏘아 맞히는 무예이다. 말 위에서 오른손에 활을 든 응시자가 첫 번째 芻를 겨누고 있고 첫 번째 추에 화살이 꽂혀 있다. 오른쪽 네 명의 관원 중 두 명이 북과 흥기를 울려 명중하였음을 알리고 있다. 화면 중앙에는 무과와 문과의 시험관이 붉은 색의 관복차림으로 그려졌다. 작품에 첨부된 제명록과 비교해서 시험관을 확인할 수 있다. 무과 시험장에서 중심에 앉아 있는 인물은 김수항이며 문과 시험장에서 화면에 측면으로 그려진 인물이 민정중이다. 문과 시험장의 빈자리는 무과 시험장에 그려진 경시관 김수항의 자리이다도 20.<sup>32</sup>

<sup>30</sup> 각 작품에 관한 연구로는 이은경, 「滄江 趙涑의 繪畫」(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p.82-92; 장진아, 「金櫃圖」(2004년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대학원 洪善杓 교수 담당 한국회화사세미나 발표요지); 진준현, 「권대운의 〈기로연회도병풍〉에 대하여」,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연구논문집』 1(서울대학교박물관, 2003), pp.3-28; 국립중앙박물관, 『朝鮮時代 風俗畫』(국립중앙박물관, 2002), p.296 참조.

<sup>31</sup> 조선시대의 문무과시험과 방방의를 시행하는 의례는 다음의 문헌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經國大典』 卷4, 兵典 試取(民族文化 編, 『朝鮮王朝法典集』 1[民族文化, 1983], pp.376-385); 『世宗實錄』, 「五禮儀」(國史編纂委員會 編, 『朝鮮王朝實錄』 5[국사편찬위원회, 1970], pp.347-348). 《복새선은도》의 제명록에 기재된 함경도 별시의 무과규식은 다음과 같다. “六兩九十步三矢俱入 柳葉箭五矢一中以上 騎芻一次二中以上 三枝取二枝 先計矢數次計分數 七矢四十分九步居首四失二十二分七步以上得參.”



도 20 韓時覺, 《北塞宣恩圖》 중 문무과시관



도 21 韓時覺, 《北塞宣恩圖》 중 방방의

서사성 높게 그려진 길주의 시험 장면과 달리 함흥의 방방 장면은 <알성시은영연도>처럼 정형화된 기록화 형식을 따라 제작되었다. 객사 안에서 임금을 대신하는 전패를 모시고 의례가 집행되고 있는데, 의식을 주관하는 인물이 김수항이다. 마당의 동쪽과 서쪽에는 십여 명의 杖衛가 배열해 있고 그 앞에는 문무백관이 나열해 있다. 西庭班列에는 무관이, 東庭班列에는 문관이 정렬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쪽의 맨 앞에 푸른색의 時服 차림으로 한발 앞서 나와 눈에 띄는 인물이 있다. 이 인물이 바로 민정중이다<sup>도2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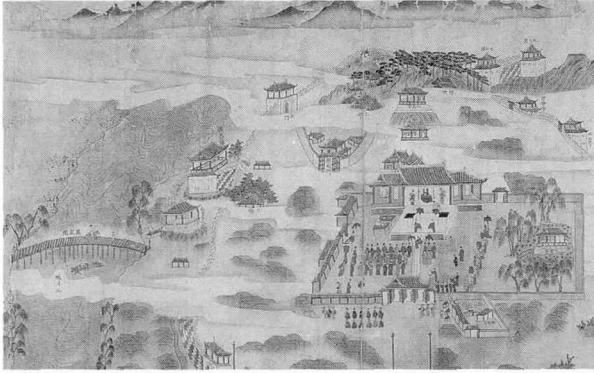
<길주과시도>와 <함흥방방도>의 건축물 표현은 거의 일치한다. 길주객사와 연결된 부속 건물을 보면, 횡축은 화면의 장축과 평행하고 종축은 일정한 시점에서 본 평행사선구도를 보이고 있다. 개별 건물의 묘사는 간결하지만 색채는 화려하고 선명하며 지붕의 가장자리는 검은 선으로 강조되었다. 이와 같은 계획 화법은 1550년의 <宮中崇佛圖> 및 <戶曹郎官契會圖>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 산수와 건축물 모두에서 16세기의 전통적인 화법을 계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33</sup>

한시각은 규장각 소장 의궤에 보이는 화원 명단에 그 이름이 20여 회 이상 나타나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화가 중 한 명으로, 주로 밑그림을 담당하는 一方畫員이었다.<sup>34</sup> 이러한 기록에서 다시 한 번 한시각의 주된 활동 영역과 작풍에 대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즉 한시각은 감상화보다 궁중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실용화의 제작에 능숙한 화원이었으며, 개성

<sup>32</sup> 《부세선은도》의 제명록은 李泰浩, 「韓時覺의 《北塞宣恩圖》와 《北關實景圖》—鄭敦 眞景山水의 선례로서 17세기의 實景圖」, pp.207-235과 이진상, 「《北塞宣恩圖》와 『北關西冊唱錄』」, pp.129-167에 수록되어 있다.

<sup>33</sup> 안취준, 『옛 궁궐 그림』, pp.23-32.

<sup>34</sup> 朴廷蕙, 「儀軌를 통해서 본 朝鮮時代의 畫員」, 『미술사연구』 9(1995), pp.203-290.



도 22 <北關別科圖>, 1731년, 絹本彩色,  
57.5×186.0cm, 국립중앙박물관

적인 화풍보다 전통적인 도화서의 화풍에 충실한 화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추정은 《북새선은도》와 유사한 화풍으로 제작된 17세기 후반의 기록화에 의해 뒷받침된다. 1668년 <李景奭賜几杖宴會圖帖>, 1669년 <萬曆己酉司馬榜會圖>는 《북새선은도》와 산수, 인물, 계화에서 모두 친연성을 보이는 기록화이다.<sup>35</sup> 이들 기록화의 배경 산수에는 공통적으로 청록의 채색법과 단선점준을 위시한 17세기 이징 화풍의 흔적이 남아 있다. 건축물의 경우 평행사선법이 구사되었으며 인물은 예제에 따라 그리되 간략하게 표현되었다. 《북새선은도》와 유사한 화풍을 보여주는 여러 기록화는 15-16세기에 감상화를 중심으로 유행했던 안건 화풍이 이징 이후 청록의 진채와 결합하여 실용화 제작의 화풍으로 자리잡았으며 이러한 화풍을 구사한 주체는 도화서 화원이었음을 보여준다.

## V. 《北塞宣恩圖》의 시대적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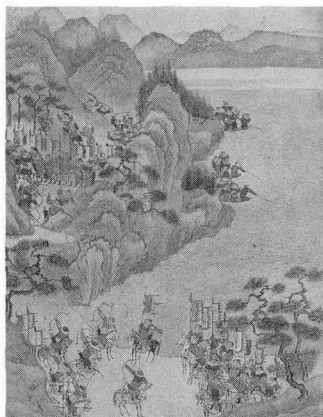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에는 1731년에 시행된 함경도 별시를 그린 <北關別科圖>라는 과거도가 소장되어 있다. <북관별과도>는 형식과 내용이 《북새선은도》와 일치하여 <북관별과도>가 《북새선은도》를 모델로 제작되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sup>36</sup> 이처럼 《북새선은도》의 제작

<sup>35</sup> 《이경석사계장연도첩》과 《만력기유사마방회도》을 다룬 논문으로는 朴廷蕙, 「朝鮮時代 賜几杖圖帖과 延謚圖帖」, 『미술사학연구』 231(2001), pp.41-73.

<sup>36</sup> 《함흥십경도》와 <북관별과도>에 관한 연구로는 洪善杓, 「南九萬 題 咸興十景圖」, 『미술사연구』 2(1988), pp.139-148; 이수미, 「《咸興十景圖》에 보이는 17세기 實景山水畫의 構圖」, 『미술사학연구』 233·234(2000), pp.45-47.



도 23 <拓境立碑圖>, 《北關遺蹟圖》,  
17세기 말-18세기 초,  
紙本彩色, 31×41.2cm,  
고려대학교박물관



도 24 <出奇破賊圖>, 《北關遺蹟圖》,  
17세기 말-18세기 초,  
紙本彩色, 31×41.2cm,  
고려대학교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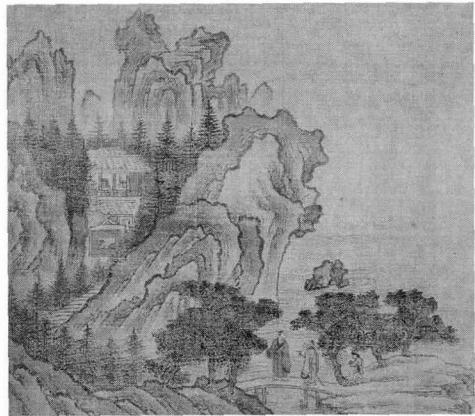
도 25 <倡義討倭圖>, 《北關遺蹟圖》,  
17세기 말-18세기 초,  
紙本彩色, 31×41.2cm,  
고려대학교박물관

목적은 함경도 별시의 예제를 마련하여 후대에 시행될 과거시험의 전거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새선은도》의 의의는 무엇보다 함경도라는 변지의 실경을 배경으로 지역적 특성을 강조한 작품이라는 사실에서 찾아야 한다. 현존하는 조선시대 회화 중에는 함경도를 배경으로 제작된 작품들이 종종 눈에 띈다. 이 작품들은 17세기 후반에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 목적성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북새선은도》와 공통된 맥락을 형성한다. 따라서 《북새선은도》가 가지는 지역적 특수성을 이해하려면 함경도라는 맥락을 공유한 작품의 제작 배경과 이러한 문화적 현상이 나타난 이유에 대해 검토해보아야 한다.

첫 번째 예는 함경도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도해한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의 《北關遺蹟圖帖》이다. 이 작품은 고려睿宗代(재위 1105-1122)에 尹瓘(?-1111)이 先春嶺에 '高麗之境'이라 새긴 비를 세웠던 사건에서 시작하여 金宗瑞(1390-1453), 南怡(1441-1468), 李舜臣(1545-1598), 그리고 임진왜란 시 의병장인 鄭文學(1565-1624)의 활약에 이르기까지 함경도에서 발생했던 역대 治亂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sup>23, 24, 25</sup>.<sup>37</sup> 이 중 李施愛(?-1467)의 난을 도명한 魚有沼(1434-1489)의 활약상을 그린 <出奇破賊圖>는 경물이 화면의 오른쪽에 치

<sup>37</sup>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의 《북관유적도첩》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朝儀士俗—조선시대 기록화의 세계』(고려대학교박물관, 2001), pp.98-107 참조. 각 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조행리, 「《북관유적도첩》 연구」(2005년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대학원 安輝濬 교수 담당 한국회화사 세미나 발표요지) 참조.

우치게 배치된 편파구도를 보이고 있으며 산의 표면에 短線點皴과 들뜬 점이 구사되었다. 이와 가장 근접하는 화풍을 보이는 작품이 17세기 후반에 제작된 선문대학교박물관 소장의 《千古最盛帖》(1670경)이다<sup>26</sup>. 《북관유적도첩》의 간략하고 허리가 긴 인물 묘사는 《북새선은도》와 유사하다. 따라서 이 화첩은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반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화첩의 각 폭은 함경도를 수호하려고 쏟아온 조정의 노력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아울러 실경을 그대로 그리지 않았으나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북방 영토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어 제작 목적으로서 공리적 의도를 읽을 수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북새선은도》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도 26 《李君山房》, 《千古最盛帖》, 1670년, 絹本彩色, 27×30cm, 선문대학교박물관

조선시대에 함경도를 대상으로 가장 많이 그려진 작품은 함흥 주변의 명승지 십여 곳을 선정하여 그린 《咸興十景圖》이다. 《함흥십경도》와 《北關十景圖》를 처음 제작한 사람은 민정중의 후임으로 함경도 관찰사에 부임했던 南九萬(1629-1711)이다. 이수미의 《함흥십경도》 연구에 의하면 이 작품의 각 폭은 지리에 높은 관심을 두고 제작되었으며 성벽, 堡, 陣과 같은 군사 행정 시설이 중요하게 선택되었다.<sup>38</sup> 남구만은 십경을 선정할 때 함경도의 정치·문화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역적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제재를 선정함으로써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명소도를 제작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남구만의 십경도를 다른 명승명소도와 구분하는 특징은 각 화면 상단에 기재된 지리에 대한 상세한 정보이다. 지리적 설명은 십경도의 제작 목적이 함경도의 알려지지 않은 명소에 대한 지리적 정보를 대중적으로 알리는 데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즉 남구만이 십경도를 제작한 근거에는 자신의 통치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의식을 불식시키고 새롭고 긍정적인 관심을 유발하고자 하는 관찰사로서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sup>27, 28</sup>.

<sup>38</sup> 1674년 남구만은 북방 지역을 직접 돌아보고 20여 곳을 선정하여 《함흥십경도》와 《북관십경도》를 제작하였다. 그는 십경을 선정할 때 함흥에서는 이성계와 관련된 사적을 포함시켰고 북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절경을 갖춘 지역을 선정하였다. 아울러 북방의 군사적 요충지를 강조하였다. 이수미, 앞의 논문, pp.38-47.



도 27 <城津鎮>, 《咸興內外十景圖》, 18세기, 紙本彩色, 각 51.7×34cm, 국립중앙박물관  
 도 28 <撫夷堡>, 《咸興內外十景圖》, 18세기, 紙本彩色, 각 51.7×34cm, 국립중앙박물관

이상의 두 작품은 모두 17세기 후반 함경도라는 지역적·시간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각 작품의 제작지는 함경도의 정치·문화·역사적 특징을 정교하게 투영시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작품을 만들었다. 특히 함경도의 특정 지역을 바탕으로 화면을 구성함으로써 영토의식을 두드러지게 강조했다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북새선은도》는 이들과 같은 맥락에 있는 작품으로서, 함경도의 실경을 바탕으로 이곳에서 처음 시행된 과거시험을 시각적으로 재현하여 이 지역이 왕의 통치력이 미치고 있는 조선의 강역임을 분명히 밝혔다. 《북새선은도》가 제작된 17세기 후반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극심한 자연재해라는 국가적 위기를 경험한 후 당시의 위기 상황을 돌파하려고 국가가 전통적인 소외 지역이던 중앙의 통제력이 약했던 변지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해나간 시기였다.<sup>39</sup>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문화적으로 낙후된 지역이었던 함경도를 배경으로 강한 목적성을 가진 일군의 회화 작품이 등장하는 동력이 되었다. 북변 지역에 대한 관심의 신장과 지배력 강화에 대한 요구가 강해짐에 따라, 함경도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통치 의지를 시각적 매체를 통해 효과적으로 드러내 보이려고 시도되었다. 이 과정에서 《북새선은도》와 같이 함경도를 배경으로 하는 회화 작품이 제작되었다.<sup>40</sup> 한편 이러한 작품은 17세기 후반, 회화의 상징적 효용에 대한 인식

<sup>39</sup> 17세기 조선의 지방 지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시기 사회사 연구반, 『조선은 지방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pp.85-179; 한국역사연구회 17세기 정치사 연구반, 『조선중기 정치와 정책: 인조-현종 시기』 (아카넷, 2003), pp.39-175을 참조.

이 높아지면서 공적 영역에서 통치의 일환으로써 시각 매체를 정치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이 갖추어졌음을 의미할 것이다.<sup>41</sup>

## VI. 결론

본 글은 조선 중기의 대표적 기록화인 《북새선은도》의 회화적 특징을 분석하고 작품이 제작된 역사적·사회적 맥락과 재현 양식의 상호관계를 조명하였다. 제작 의도를 구체화하고 문화적 성격을 밝히는 과정을 거쳐 한 작품이 회화적 전통과 개인 혹은 사회의 요구가 만나는 접점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였다.

《북새선은도》 제작의 직접적 동기는 1664년 함경도에서 처음 실행된 정식 외방별시이다. 함경도에서 별시를 실시한 이유는 당시 자연재해가 극심했던 함경도의 백성을 위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문헌 기록의 검토를 통해 전통적으로 소외되었던 변경 지역의 요구를 수용하여 사회 통합과 왕권 강화를 이루고자 하는 데에 좀더 근본적인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이 작품의 제작 배경으로서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함경도에 파견되었던 지방관들이다. 함경도 별시에 파견된 경시관은 김수항이었으며, 이곳에서 시험을 주관한 관찰사는 민정중이었다. 또한 과시에 참여했던 문관 시관의 대부분은 송시열과 이식의 문인으로서 서인계열의 문사들이었다. 시험관들은 회화를 특정한 정치·사회적 목적에 맞춰 정교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적 소양과 경험을 갖춘 인물이었다. 이들의 존재는 오직 함경도에서만 과시를 기념하는 기록화가 제작되기까지 특별한 조건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북새선은도》의 가장 중요한 회화적 특징은 행사 장면과 지도 형식으로 재현된 실경을

<sup>40</sup> 《함흥십경도》는 18세기 명승도로서 되풀이되어 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도상이 나타나거나 일부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함경도를 배경으로 더 이상 새로운 제재의 회화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것은 함경도 지역에 대한 지배력의 안정과도 관련 있을 것이다.

<sup>41</sup> 17세기 사대부를 중심으로 사적 영역에서 개인과 가문을 기념하려는 목적으로 기록화를 제작하는 문화 풍조를 규명한 조규희의 연구는 당시 사대부 사회에서 회화의 상징성과 이를 정교하게 활용하는 문화적 역량이 어디까지 이르렀는가를 이해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된다. 조규희, 「朝鮮時代 別墅圖 研究」(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同著, 「16세기 후반-17세기 초반 경교사족들의 문화와 사가행사도(私家行事圖)」, 『미술사의 정립과 확산: 한국 및 동양의 회화』 1(사회평론, 2006), pp.210-236; 同著, 「《곡운구곡도첩》의 多層的 의미」, 『미술사논단』 23(2006), pp.241-275.

결합하여 행사가 시행된 장소를 함께 기념하였다는 점이다. 이 작품과 회화식으로 제작된 함경도 지도를 비교하여 화면에 재현된 장소와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작 의도까지 읽어볼 수 있다. 각 쪽은 함흥과 길주 부지 대부분을 포괄하되 행사 장면과 몇몇 중요 지형지물은 실재 형태대로 그렸다. 특히 부지를 둘러싼 자연지형은 진채의 청록으로 표현하여 강조하였다. 이처럼 행사도의 일부분으로서 지도 형식에 의해 의도적인 질서를 부여하여 재현된 산천은 심성의 수양이나 감흥의 대상이 되는 자연이 아니라 국가의 통치 영역이라는 현실적인 의미를 띠게 된다. 이는 국가가 함경도에 과시를 시행한 목적과 《북새선은도》가 궁극적으로 보여주하고자 하는 바가 만나는 지점이다. 즉 《북새선은도》는 17세기 중반의 회화적 역량을 보여주는 작품이자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변지인 함경도에 왕도의 질서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태평성대의 이상을 담은 회화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주제어(key words) \_\_ 북새선은도(*Buksaeseoneundo*), 함경도(Hamkyeong province), 민정중(Min Jeongjung), 실경산수화(topographical painting), 기록화(documental painting)

▣ 투고일 2007년 3월 23일 | 심사일 2007년 4월 20일 | 심사완료일 2007년 5월 31일 ▣

## 국문초록

《북새선은도》는 1664년 함경도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정식 외방별시를 기념하여 제작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기록화이다. 본고는 작품의 제작을 규정하는 '17세기'와 '함경도'라는 시대적·지역적 조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작 의도와 회화적 특징 사이의 관계를 구체화하고 그 문화적 성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함경도 별시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였던 17세기 중반 전통적인 소외 지역이었던 함경도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왕권 강화를 이루는 데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시행된 행사였다. 《북새선은도》는 과거시험의 보고서적 성격을 지니는 기록화이지만 상당수의 조선시대 기록화가 그렇듯이 그림의 제작에 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 구체적인 제작 의도와 배경을 시대적 상황과 과거시험에 관한 기록을 바탕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기록화의 제작 의도를 이해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작품의 제작을 계획하고 내용과 형식을 결정하는 중심인물이 누구였으며 이들이 회화를 통해 남기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이다. 본고에서는 《북새선은도》의 제작을 주도하였을 인물로서 당시에 함경도에 파견된 경시관 김수항, 관찰사 민정중을 비롯한 문관 시관을 주목하였다. 문관 시관들은 당시 예학의 종주인 송시열과 이식의 문인이며 서인 정국을 이끌어가던 김수항의 지지자였다. 동시에 17세기 중반 양반 문화의 중심에 위치하던 문인으로서 특정한 정치적·사회적 목적에 맞춰 시각적 수단을 정치하고 계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적 소양과 경험을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당시 문화적으로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던 함경도를 배경으로 궁중기록화에 필적하는 작품이 제작될 수 있었던 특별한 조건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 추정된다.

《북새선은도》의 가장 중요한 회화적 특징은 실제 지형을 기록함으로써 행사가 시행된 장소를 기념하였다는 점이다. 재현 방법으로서 군현지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회화식 지도 형식을 채택하였다. 기호적인 속성을 가지는 지도 형식을 이용하여 화면 안에 함흥과 길주의 부지 대부분을 효과적으로 포괄하되 지역의 통치와 관련된 주요 지형지물을 선택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제작 의도를 드러냈다. 행사와 더불어 계획적 질서를 부여하여 진체의 청록으로 재현된 실경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 혹은 감흥의 대상이 되는 자연이 아니라, 왕권이 효력을 미치고 있는 통치의 공간이라는 현실적 의미를 시각적으로 제시하게 된다. 이는 국가가 함경도 과시를 시행한 목적과 《북새선은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만나는 지점이다. 즉 《북새선은도》는 17세기 중반의 회화적 역량을 보여주는

기록화이자 중앙의 권력이 미치지 어려운 변경 지역에 王道의 질서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태평성대의 이상을 담은 회화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 Abstract

# A Study of Buksaeseoneundo

**Lee Kyunghwa\***

A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documentary paintings, Buksaeseoneundo (《北塞宣恩圖》) records the first official governmental examination taken place in Hamgyeong province in 1664. This paper aims to reexamine its execution date and pictorial features that determine this painting as a seventeenth-century topographical documentary painting as well as to achieve a better understanding its pictorial features closely tied with its political function.

The special governmental examination in Hamgyeong province, a place which had been traditionally neglected for its geographical isolation, was conducted with an attempt to unify the divided political environment by propagating the political power of the king. Buksaeseoneundo was usually discussed as a mere documentary painting that reported the result of that significant governmental event, however, its specific function and political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event had not been fully explored for the lack of substantial records about the painting. For this reason, it will be necessary to reconstruct the social milieu that surrounded the painting.

In order to understand the situation in which this documentary painting was commissioned, it is important to identify the key figures who determined the content and format of this work, as well as to find out what aim this painting was created with. In such a discussion, I suggest that the

---

\* Ph.D. candidate, Seoul National University

following literati officials such as Kim Suhang (金壽恒), an official dispatched by the royal court, and Min Jeongjung (閔鼎重), a provincial governor might have led the creation of Buksaeseoneundo. Those literati officials were in the political lineage of Song Siyeol and Yi Sik as well as the political supporters of Kim Suhang who led the Westerners party. They were also the literati scholars sophisticated enough to employ a visual image as an important means in order to fulfill their political missions. Therefore, Buksaeseoneundo done in highly sophisticated court style brushwork seems to have been created under such a special political circumstance.

One of the most characteristic features of Buksaeseoneundo lies on its pictorial exactness that captures the topographical features of Hamgyeong province. The painter seems to have been inspired by the so called "Pictorial Map." Borrowing the pictorial format of maps whose main function was sign, the painter unmistakably portrayed topographical and architectural objects located in Hamgyeong province as an highly effective sign in order to emphasize topographical likeness. I believe that such a pictorial choice explicitly reveals the role of this painting as a political propaganda. More importantly, the landscape colored with vibrant blue and green suggests that the painter neither aimed to portray the real scenery nor to inspire inner consensus from the viewer, but rather to visualize a political space viewed and governed under the absolute power of the king. The primary purpose of conducting the special government examination for the first time in Hamgyeong province was successfully fulfilled though certain pictorial vocabularies chosen for Buksaeseoneundo. It seems to be true that Buksaeseoneundo is a mid-seventeenth century documentary painting that displays a successful encountering of the use of visual image and the political vision of the king that wished his peaceful governing to reach even the most isolated place like Hamgyeong province.